



Professor Emeritus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nd
International Affairs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Literatures
Senior Advisor, GW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kimrenau@gwu.edu
<http://call.columbian.gwu.edu/young-key-kim-renaud>

Young-Key Kim-Renaud, Ph.D.

Dr. Young-Key Kim-Renaud is Professor Emeritus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nd International Affairs. She was chair for 12 consecutive years of the East Asian Languages and Literatures Department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GW) before retiring in 2015. She is the founder of GW's annual Hahn Moo-Sook Colloquium in the Korean Humanities. She has taught at Sogang University (Korea), Harvard University and Nanjing University (China) as a visiting professor. She is past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Linguistics and previous Editor-in-Chief of its journal, *Korean Linguistics*. She has published widely on Korean language, linguistics, cultural history, and current affairs. She has published eleven books. She has organized major academic conferences and cultural events. As a donor and fund-raiser, she has helped create three endowed professorships in Korean studies at GW. She has testified in U.S. courts for criminal and civil cases and has been interviewed by major U.S. and Korean media such as National Public Radio, the New York Times, and the Washington Post in the US, and KBS, MBC, YTN, and Segye Times in Korea, as a linguist and a Korean cultural expert. She has received many prestigious grants and awards, including three Fulbright awards, the Republic of Korea Order of Cultural Merit, Jade Class, the Bichumi Grand Award by the Samsung Life Foundation and the Distinguished Korean of the Year Award from the Korean American Foundation.

김영기 (金榮起 Young-Key Kim-Renaud) 조지워싱턴대 한국 언어 문화 및 국제학 명예교수

김영기 박사는 현재 조지워싱턴대학 한국학연구소 상임교수이다. 동 대학에서 32년 교편생활을 마치고 2015년에 은퇴했다. 마지막 12년은 동아시아 어문학과장직을 맡았다. 이화여자대학에서 영어영문학을 전공 후 미국 가주 버클리대학에서 언어학 석사, 프랑스 파리대학 소르본느에서 외국어로서의 불어 교육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하와이대학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영기 교수는 국외 정식 대학과정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개척자의 한 사람이다. 한국어 구조를 이론적으로 연구하며 한국어 교육에 50년 종사하며 언어학뿐 아니라 한국인문학이 동아시아와 세계 안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인정받게 하는 데 전심하였다. 그의 11개의 서적과 많은 언어학과 문학, 문화에 관한 출판물은 여러 주요 학술지와 신문 등에서 격찬의 서평을 받았다. 그는 평생 언어학자로 활동하였으나 문학과 인문학은 그의 삶에서 떠난 일이 없었다. 김영기 교수는 GW에서 한국문학을 20년 이상 강의하였으며, 그가 설립하고 시행해온 한무숙 기념 한국인문학 콜로퀴움은 2017년 가을 25회째 모임을 한다.

김 교수는 미 연방정부 국립과학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서 언어학과 부 과장을 역임했고, 거의 40년 동안 국제 한국언어학회 (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Linguistics)의 전무후무한 여성회장으로 그 학회의 학술지인 *Korean Linguistics*의 역시 전무후무한 여성으로 편집장직을 맡았다. 이 학술지는 2013년부터 한국학의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한국학 역사 최초로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전문분야 학술 저서 출판사인 John Benjamins 출판사에서 출판하게 되었다. 김 교수는 2010년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열린 일본/한국언어학 학술대회에서 기조 연설을 하였고 하바드대학, 서강대학, 남경대학 등에서 초빙교수를 지냈으며, 서울대학, 서강대학,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에서 강연을 하였다. 김 교수는 세 번에 걸쳐 미국 Fulbright 상을 받아 한국에 두 번, 중동 요르단에 가 연구하였고, 한국 국제교류재단, 문화부, 교육부, 공보부, 한국학 중앙연구원과 미국의 사회과학연구원과 워싱턴지구 대학 컨소시엄 등, 여러 장학기관에서 연구, 행사, 행정에 필요한 연구비 및 활동 보조와 상을 받았다.

김 교수는 조지워싱턴 대학에 한국학 관련 일곱개의 기금을설치하는데 주역할을 했고, 그 중 세 기금은 세 영구 교수직 기금 (한국역사학, 한국 정치학, 한국인문학)이다. 김박사는 미국 법정에서 형사, 민사 재판에서 한국언어학, 한국문화 전문가로 초대되어 증언하였으며 현지와 본국 한국 언론과 미국, 영국, 중국 등 언론에서 인터뷰를 받았다.

김교수는 한국 경축일로 지정된 후 첫 한글날인 2006년 10월 9일 노무현대통령으로부터 한글발전유공자로 대한민국 육관 문화훈장을 받았으며, 2008년 12월 31에는 독도 관련 공로로 비추미여성상 특별상을 받았다.